'2011년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광주일보 탐사보도팀이 김재호 한국신문협회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 기획보도

광주일보 '한국신문상' 수상

광주일보의 기획보도물인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대안찾기)가 '2011년 한국신문상'을 수상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6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5회 한국신문의 날' 기념식을 갖고 광주일보의 기획시리즈 등 3편의 한국신문상 수상작에 대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광주일보 윤영기·최현배·최경호·이보람·이종행·양수현·김 호 기자 등 7명이 한국신문상 기획탐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광주일보의 경영지원국 임중현 부장은 관리업무에 내실을 기해 신문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신문협회상을 받았다.

또 중앙일보(사라진 조선국보 일본 왕실에 있다)와 국민일보(잊혀진 만행, 일본 전범기업을 추적한다)는 각각 뉴스취재보도 부문과 기획탐사보도 부문 신문상을 수상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시상식에서 "광주일보의 보도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등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보도해 지역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일보는 '다문화사회'를 맞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회와 가정, 학교 등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진단해보고, 그들의 꿈과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 국내·해외 심층시리즈를 총 19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외롭고 병들고 가난한 광주 노인들

안타까운 '황혼 자살' 는다

노인자살예방센터 등 사회 안전망 부족

광주지역에서 외로움과 무관심때문에 홀로 사는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노인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나 전문기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주택에서 A(여·72)씨가 연탄을 피워놓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이종사촌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집 안방에는 '누가 전화 한 통 하지도 않고…가슴이 뜨거워지고 화병이 난다…너희들이 너무 무관심해서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이 적힌 달력과 현금·금반지 등이 놓여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A씨의 아들과 딸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남편과는 이혼해 A씨는 20여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다. 또 A씨는 2년 전 갑상선 암으로 최근까지 약을 복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주택에서 부부싸움이 잦은 아들 내외의 화해를 바라던 독거노인 B(여·75)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독거노인과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황혼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10년 전에 비해 7배 이상 늘었으며,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57.7명)은 젊은 층 자살률(15~34세·인구 10만명 당 27.9명)의 2배 이상 될 정도로 심각하다. 광주지역 노인 자살자는 지난 2001년 9명에서 2008년 65명, 2009년 70명으로 65세 이상 자살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광주 지역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 없다. 각 구별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여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룰 뿐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서울에 3곳, 경기 2곳, 대전 1곳 등 타 시·도는 노인자살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속속 개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선희 교수는 "노인들의 경우 각종 질환과 불편한 거동 때문에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 또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 짐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청소년과 일반인의 자살과 다르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인 여가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살에 관한 특화된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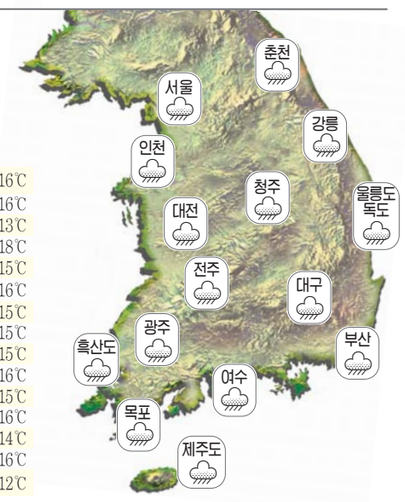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2분 해짐 18시 58분 달뜸 07시 52분 달짐 22시 32분

비 많이 온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할것.

광 주	흐리고 비	11/16℃
목 포	흐리고 비	11/16℃
여 수	흐리고 비	10/13℃
나 주	흐리고 비	12/18℃
완 도	흐리고 비	11/15℃
구 례	흐리고 비	9/16℃
해 남	흐리고 비	11/15℃
장 흥	흐리고 비	11/15℃
순 천	흐리고 비	10/15℃
영 광	흐리고 비	11/16℃
진 도	흐리고 비	11/15℃
전 주	흐리고 비	10/16℃
군 산	흐리고 비	10/14℃
남 원	흐리고 비	10/16℃
흑산도	흐리고 비	7/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먼바다	남~남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04:16 16:11	09:25 21:26
여수	10:47 23:22	04:44 16:5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날 씨						
최저/최고	9/15	5/17	6/19	6/20	6/20	8/21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수업시간 인정

교과부, 고교에 전문 예술교과도 개설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고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고교는 합주,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전문교과를 개설해 음악, 미술 교과를 대체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평구 하나고를 찾아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과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당장 전국 초·중·고 학생들은 방과후나 쉬는 토요일에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중·고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주중 오후나 수업있는 토요일에 축구, 농구, 테니스, 수영, 댄스 스포츠, 골프 등 각종 스포츠클럽 활동을 선택과목(중학교)이나 교양선택과목(고교)으로 개설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했는지만 기록된다.

고교 단계에서는 2학기부터 합주,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전문 교과목을 개설해 음악, 미술 관련 일반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능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교과부, 전체 중고교 학생부 정정 실태조사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사례가 문제화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전국 모든 중고교의 학생부 정정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작성 및 관리 방안'을 지난달 말까지 수립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예정으로 모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정정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

방사능 비? … 최고 70mm 온다

기상청 "방사성 물질 유입 가능성 낮다"

7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비에는 방사성 물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크며 예상 강우량은 30~70mm.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6일 예보했다.

7일 광주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에서 12도이며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8도 분포로 전망된다. 금요일인 8일은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남쪽으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